

사드배치 예정지 이전 논의에 관한 우리의 입장

1. 우리 성주 군민은 오늘로서 23일째 촛불을 밝힌다. 지난 20여일동안 우리 성주군민의 외침은 오직 사드배치 철회였다. 인구 4만5천명의 작은 군이라고 사드배치예정지라는 명에와 오욕을 뒤집어쓰게 된 우리가 어찌 우리보다 인구가 더 적은 곳에 이 더럽고 위험천만한 피물을 가지고 가라고 떠넘기겠는가? 정부와 국방부는 더 이상 우리 성주군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지 말라.

2. 지난 20여일동안 우리는 싸움만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존을 넘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을 부둥켜안고 울면서, 참외밭을 뒤엎으면서 아프게 깨우쳤다. 우리 군민들은 요구한다. 정부와 국방부는 사드를 성주 또는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인지를 넘어서 과연 대한민국에 사드가 필요한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지난 7월 13일, 국방부는 경북 성주의 성산이 사드배치의 최적지라고 발표하였다. 우리 군민들이 국방부를 방문하여 거세게 항의했을 때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배치 예정지 평가표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을 찾아보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 스스로 성산이 사드배치의 최적지라는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사드배치와 같이 국가의 존망이 달린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하여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국정에 혼란을 초래한 한민구 국방장관을 즉각 사퇴시키고, 새로 임명되는 국방부 장관이 모든 법적 절차를 엄수하여 원점에서부터 검토하도록 해야한다.

4. 우리 투쟁위원회는 제3지역 검토라는 작금의 논의가 정부의 소나기 피하기식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음을 직시한다. 정부는 성주군민들을 분열시키고자 가능하지도 않은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성주군민들은 이미 꿰뚫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드의 제3의 장소로의 이전이 아니라 철회를 외칠 것이며 성주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성주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고향 성주에서 사드를 막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며 영광스러운 임무임을 잊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우리를 지지하고 엄호해 달라. 투쟁!!!

우리의 입장

하나. 우리의 요구는 사드배치 철회이다. 정부는 사드 이전설 등으로 더 이상 성주군민을 모욕하지 말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드의 한국배치 결정에 관해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미국정부와 미국방부를 설득하라.

하나.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배치의 졸속결정으로 인해 국정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16년 8월 5일

성주 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